

수능최저기준·EBS 연계 축소·폐지 검토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시안' 공개

학부모 인적사항·수상 경력란은 삭제
숙의·공론화 과정 거쳐 8월 최종 확정

교육부는 11일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위해 공개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 시안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담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내용 등에 대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대입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개편시안과 관련, “수시전형마다 수능최저기준이 달라 입시가 복잡해졌다”면서 “수시와 정시모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주는 수능최저기준을 축소·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요구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능최저기준 축소·폐지 기대효과로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전형 준비가 단순해지고 수시전형에서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과 수시합격자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제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는 125개교이다. 수능최저기준이 있는 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 수시모집 인원의 25.9%인 6만8944명이다. 수능최저기준이 없는 학교는 포항공과대·한양대 등 74개교다.

앞서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에 수시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학들의 반응은 갈린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 수시부터 수능최저기준을 폐

지하겠다고 했지만 고려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고등학교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수능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려대는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지원자가 급증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개편안에 수능과 EBS교재 간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거나 간접연계로 전환을 검토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BS-수능 연계정책은 2011학년도 시작됐으며 2016학년도에는 영어영역부터 지문과 주제, 소재 등이 비슷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가져다 쓰는 간접연계가 도입됐다.

EBS교재를 암기하는 공부법이 학생들 사이 확산하고 EBS교재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돼 EBS-수능 연계정책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EBS교재 문제를 과도하게 변형해 출제하면서 문항오류 가능성이 늘어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교육비와 학습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EBS 연계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안에는 ▲학생부 학부모 인적사항 및 수상경력란 삭제 ▲대입전형요소에서 대필·허위 작성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공통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공개 ▲대입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별·지역별 정보 공개가 담겼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22수능 시험과목 개편 시안

2019~2021 수능	1안	2안	3안
국어	국어	국어	국어
수학(가/나)	수학(가/나)	수학	수학(가/나)
영어	영어	영어	영어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탐구(택2)	탐구(택1)	사회(택1)+과학(택1)	탐구(택2)
사회: 9과목	사회: 9과목	사회: 10과목(통사 포함)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과학: 4과목	과학: 5과목(통과 포함)	과학: 8과목
직업: 10과목	직업: 1과목		직업: 10과목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제2외국어/한문

※ 국가교육회의에서 새로운 안 제시 가능

연합뉴스

자료/교육부



혼수의 거리 상징 조형물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 입구에 세워진 혼수의 거리 상징 조형물 앞에서 시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구가 공모로 선정한 이 조형물은 박상권 작가의 작품으로 한복을 입은 여인이 오방색 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5
해질녘 19:02
달 뜨는 시간 04:02
달 지는 시간 15:12

포근한 봄

서해상의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8/21	보성	맑음	6/21
목포	맑음	8/18	순천	맑음	9/22
여수	맑음	10/21	영광	맑음	6/18
나주	맑음	6/21	진도	맑음	7/19
완도	맑음	9/22	전주	맑음	7/20
구례	맑음	6/22	군산	맑음	6/17
강진	맑음	7/22	남원	맑음	5/21
해남	맑음	6/22	흑산도	맑음	9/14
장성	맑음	6/2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	서~북서 0.5
서부 앞바다(동)	남동~남 0.5~1.0	서~북서 0.5~1.0
서부 앞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55 17:39	11:51 --:--
여수	00:35 13:22	07:16 19:18

◇주간 날씨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	☁	☀	☀	☀	☁	☀
8/21	12/17	7/14	6/19	8/20	9/26	10/22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전남지역 의대 유치 물건너 가나

정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

30년 추진 목포대·순천대 허탈

정부가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의대 유치를 추진하던 전남지역 대학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서 그동안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은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남대 폐교를 전제로 의대 유치를 추진해 오던 순천대와 목포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전북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이 들어서게 되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 전남에 의대 설립은 힘들어지게 된다.

순천대는 순천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

의원과 함께 의대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와 광양 등 산업단지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형 대학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거셌다.

순천시는 이런 지역의 요구에 따라 순천시가 의대를 유치하면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대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순천시의회도 순천대 의대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가 모두 나섰다.

순천대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에서는 대처하기 어려워 항상 대학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했는데 어렵다”며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결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0여 년간 의대 유치를 추진해 온 목포대도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접하고 허탈해하고 있다.

목포대는 목포시, 지역 국회의원, 의료인 등과 함께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파하고 나서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를 벌였다.

목포대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관해 확인 중”이라며 “전남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는 데다가 섬이 1천 개에 달해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논·서술형 수능에 고교학점제 기반 학생부전형

교육부, 중장기 대입 정책방향

교육부는 11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대입 정책방향도 공개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중장기 대입제도는 논·서술형이 포함된 미래형 수능과 고교내신 성적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기반 학생부전형을 축으로 한다.

성취평가제는 상대평가와 달리 학생개인의 교과목별 성취 수준을 A~E로 평가한다. 어느 학생이 더 잘했는지가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가 평가 기준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능력과 적성, 희망진로에 따라 대학에서처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

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 이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와 학점제는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 혁신과 연계해 논·서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으로 예정된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내신 성적평가제를 확대하고 대입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근거해 성취 기준과 수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게 된다. 연합뉴스



제14회 **영산포**
홍어축제
2018. 4.13.금 - 4.15.일
영산포 둔치체육공원 일원

유채꽃과 영산강 황포돛배의 향연!
600년 전통 홍어의 거리 **나주 영산포**로 오세요!

Yeongsampo Skate Festival 2018

주최·주관:영산포홍어축제추진위원회